▶▶ 매일 INDEX

4면
단청 보수부터 야간경관 개선까지
전주 관문 '호남제일문' 새단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음 9월 12일) 제264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핑크뮬리과 오색 단풍으로 붉게 물든 사선대

27일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가 핑크뮬리과 오색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포용국가 위한 자치분권' 협력 합의

2020 자치분권위-OECD 컨퍼런스… 국내외 전문가 온·오프라인 토론

송 지사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강화" 제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자치분권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써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영상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www.pcad.go.kr)와 유-튜브(아하TV)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이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이며,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은 현장 축사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비롯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강력히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주제발제와 토론 및 명사좌담회에서는 국내학자 및 행정안전부 차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대전시장, 증평군수, 전남도의회의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OECD 전문가 등 총 21인이 참석해 온·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27일 첫날은 재정분권 관련 주제로 2개 세션의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세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에서 국내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협력체계 정립을 위해 주민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 자치단체간 재정조정 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8일은 자치분권의 의제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3세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은 호아킴 올리베라 마틴(Joaquim Oliveira Martins) OECD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유호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7일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전주혁신창업허브 개관식에 참석해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의 거점 '전주혁신창업허브' 문열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6개사 입주 마무리

전주경제를 이끌며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터전이 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송영진 전주시의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근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미래 신성장산업의 거점이 될 '전주혁신창업허브'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 영상에 이어 공사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시상,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전주혁신창업허브 공간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혁신창업허브는 국비 1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22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8월말 완공됐다. 이곳에는 기업들의 입주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등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갖춰졌다.

전주혁신창업허브에는 3차에 걸쳐 모집된 총 44개 기업 중 현재까지 36개사가 입주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입주를 할 예정이다. 추가로 다음달 2일까지 6개실에 대해 4차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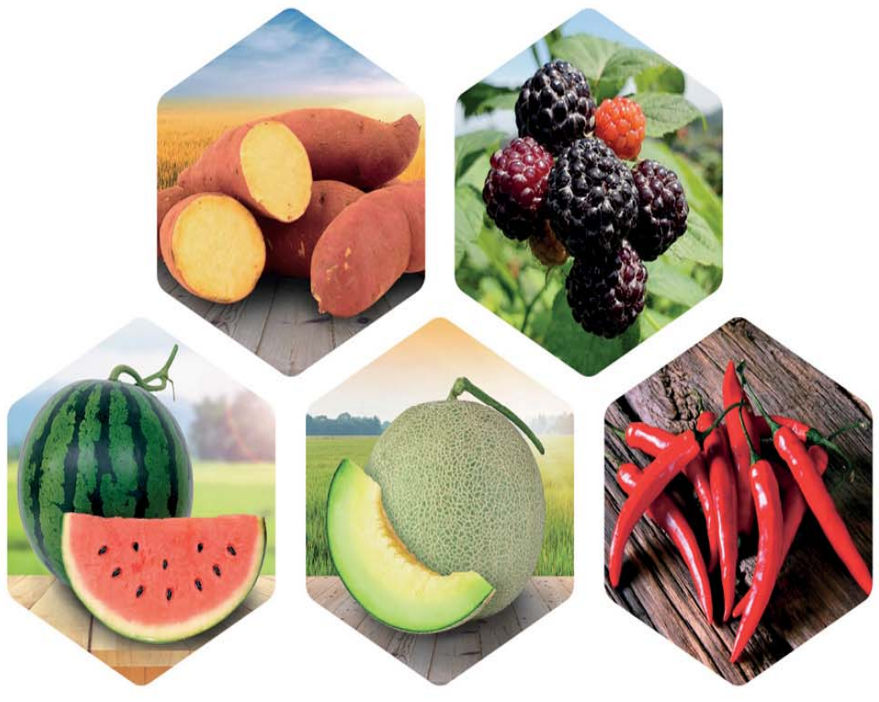
입주 기업은 ▲뿌리산업 ▲메카트로닉스·ICT 융복합 ▲드론·PAV(개인항공기)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 ▲지능형 기계부품 ▲디지털·그린뉴딜 등 첨단산업을 이끌 중소기업들로 구성됐다. 이들 기업에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육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시는 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 기업들에 창업에서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임대형 입주공간을 넘어 기업성장의 거점이자 지역경제의 산실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새롭게 문을 연 전주혁신창업허브는 지난 2002년 조성된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제2의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의 전주혁신창업허브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노송동의 ICT지식산업센터, 대학과 협력하는 산학융합플라자 등 지역경제를 살려낼 거점공간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전주가 선점해온 탄소, 수소, 드론 등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동력을 키우고 지역기업의 성장에 기반한 글로벌 강소기업도 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고창군
GOCHANG COUNTY

높을 High Gochang 고창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